

복기(復棋)는 바둑 용어입니다.

바둑의 승부가 끝이 나면, 승자는 패자를 위하여 처음부터 두었던 대로 다시 처음부터 놓습니다. 그것을 복기라고 하는데, 패자를 위한 시간입니다. 어디에서 실수를 하였는지, 어느 패를 잘못 두었는지를 처음부터 다시 천천히 생각해보는 시간입니다. 패자는 복기를 통해 성장을 하며 다음에는 같은 실수를 하지 않는다고 하지요.

우리는 개념 공부를 하고 나서 이해했다고 생각하지만, 문제를 풀어내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사실 개념 강의를 들었을 때는 이해한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지, 사실 이해가 제대로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급한 마음에 문제를 풀어내려고만 했던 것입니다.

문제를 풀기 전에 본인이 학습한 것을 천천히 다시 살펴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인지하고 다시 개념을 살피며 보완해야할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이 때 활용하는 것이 바로 **복기노트**입니다. 복기노트는 중요한 개념의 제목과 그림 정도만 있는 노트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하면 백지 노트입니다. 그 빈칸을 여러분들의 학습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채워나가는 것이 바로 최고의 복습이고 그 복습 시간을 갖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학습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아래에 있는 복기노트 활용법을 참고해서 자신만의 개념노트를 만들어 가며 학습하시기를 당부 드리며 좋은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최고의 복습 시스템인 **복기노트 활용법** 을 잘 활용하는 방법을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강의를 통해 개념을 충분히 듣고 학습을 합니다.

두 번째!

개념 공부를 하고 나서 이들이 지나가기 전에 복기노트의 제목과 그림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생각하며 정리를 합니다.

세 번째!

수능특강 교재와 본인이 정리한 복기노트를 비교하며 자신이 생각하지 못해서 빠진 내용들을 다른 색 펜으로 수정, 보완합니다.

네 번째!

수능 특강의 문제를 풀어봅니다.

다섯 번째!

문제를 풀고 나서 문항 번호에 본인이 충분히 풀어낸 문제, 다음에 한번 더 봐야 하는 문제, 이해하지 못한 문제등의 표시를 하면서 마무리 합니다.